

# Henkel, 고내열 나사용 접착제 공급

Henkel이 고내열성 나사용 접착제 신제품을 국내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전국적인 로드쇼를 펼치고 있다.

헨켈테크놀로지스(대표 파루크 아리그)는 국내 협력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록타이트 나사고정제 전국 로드쇼를 8월23일부터 시작하면서 신제품 <록타이트 243®>과 <록타이트 263®>을 공개했다.

다양한 사용자 조사와 연구에 최신 기술을 더한 나사고정용 접착제는 프라이머 없이도 철, 구리 등 활성 재질이나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등 비활성 재질의 모든 금속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우수한 내열성 덕분에 180 ℃까지 견딜 수 있고 산업용 오일에 대한 내성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로 구성된 록타이트 로드쇼 팀은 서울 청계천, 구로 및 경기 안양 공구상가 등을 시작으로 9월11일까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의 300여개 공구상가를 직접 찾아간다.

나사고정제는 제조업, 중공업, 건설 현장, 자동차, 항공기, 의료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며 나사가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50여년 전 세계 최초로 액상 나사고정제를 개발한 록타이트는 글로벌 최고의 나사고정제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Henkel은 로드쇼를 통해 접착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록타이트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실무자들에게 전문가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2009년 로드쇼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화학저널 2010/9/6>